

HEREN

트루 프리미엄 멤버십 매거진 HEREN IS LOVE

FEBRUARY 2015

MONT
BLANC 

Meisterstück Heritage
Perpetual Calendar
and Hugh Jackman

Crafted for New Heights

나의 일상적인 HANBOK

호텔 총지배인 6인이 그리는 세계
선율 위의 목자, 임헌정



Meisterstück 90 Years Collection



©Kukje Gallery



ARTIST

감성을 일깨우다

자신만의 독보적인 작업으로 어느새 한국 미술계의 든든한 허리가 된 사유의 설치미술가 양혜규. 그녀가 5년 만에 국내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

'Lives and works in Berlin and Seoul'. 양혜규의 홈페이지(양혜규 스튜디오)에 기재된 프로필 중 하나다. 그녀는 베를린을 거점으로 작업실 없이 베를린과 서울을 오가며 1994년부터 21년간 노마드 생활을 해왔다. 베니스 비엔날레(2009), 카셀 도큐멘타(2012), 아트 바젤의 '언리미티드'(2014) 등 세계적인 미술 행사에 참여해오며 국내보단 해외에서 더 친근한 작가이기도. 그런 그녀가 2010년 아트선재센터에서의 개인전 이후, 참 오랜만에 국내에서 개인전을 연다. 바로 2월 12일부터 5월 10일까지 삼성미술관 리움 기획전실에서 열리는 <코끼리를 쏘다 象 코끼리를 생각하다>展. 서도호 작가의 <집속의 집> 이후 리움이 개최하는 두 번째 한국 중견 작가 개인전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미술계까지 양혜규란 이름에 전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작가는 서울대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한 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미술대학의 조형예술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본격적인 독일 생활을 시작하며 독일의 다양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거쳤다. 2003년도에는 에르메스 현대미술상 수상자가 되었고, 2006년엔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방치된 폐가에 링거대나 옷걸이, 전구와 전선 등을 모아 사유의 공간으로 탄생시킨 '사동 80번지'로 국내 미술계에 이름 석자를 새겨 넣기 시작했다.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한국관 대표로 참가하며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닌, 소란과 환호의 중심에 섰으며, 이후 2010년 여름, 아트선재센터에서 <셋을 위한 목소리>展을 여는 등 숨가쁜 행보를 이어왔다. 양혜규는 일상의 경험과 기억들을 특유의 추상언어로 풀어낸다. 영상과 설치, 비디오와 사진, 빛과 향기, 심지어 퍼포먼스까지. 개체와 주체들이 어떻게 타인과 만나는지, 소재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녀만의 화법으로 주제를 전달한다. 어떤 매체든 가공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장르에서 자유롭기도 하다. 가령, 전 세계 각지에서 전시된 후 되돌아온 작업들을 포장도 풀지 않은 채 한데 모아 또 다른 설치 작품으로 만든

'창고 피스'는 전시 시스템에 대한 비평적 태도, 팔리지 않은 작품에 대한 작가의 고민 등을 드러낸 작품. 또 블라인드라는 기성 제품을 이용해 만든 '일련의 다치기 쉬운 배열' 시리즈나 '비대칭적 평등' 작업들에선, 완전하지 않은 상태의 추상적 공간이란 개념을 상징하고 관객 개개인의 감성과 기억을 일깨우기 위해 열기구, 에어컨, 가습기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어떨까. '코끼리'라는 영물을 매개로 삼고 향토, 전통, 민속이란 프레임이 강한 '짚풀'을 이용한 신작들을 선보인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작업인 광원 조각 '서울 근성'(2010)과 최대 규모의 블라인드 설치 작품 '성체'(2011), 봉투 콜라주 작업인 '신용양호자들'(2015), 방울 조각 시리즈 등도 함께 볼 수 있다. 전작들이 그랬듯 분명, 쉽지 않은 전시일 것이다. 호기심은

생기지만 전시장을 찾기 쉽지 않은 이들에게 한 권의 책을 추천한다. <절대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생성하는 멜랑콜리>(현실문화). 이 책은 지난 10여 년간 창조된 그녀의 작품과 기록, 비평, 작가의 목소리 등이 담겨 있는 일종의 자서전이다. '작가 입장에서 회고전은 내가 얼마나 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의미도 있다'라고 말한 양혜규. '세미 회고전' 형식의 이번 전시는 관객들에게도 한국 현대미술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의 족적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 양혜규 스튜디오